

2024 새해 이렇게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반값여행 등 관광객 500만명 유치에 사활 걸겠다



관광객 강진서 쓴 돈 절반 돌려주는 파격 정책... 모든 소상공인 도움 육아 수당 전국 최고액 지원·이주민 지원액 최고 7000만원까지 늘려

"2024년은 '반값 강진관광'을 통해 생활 인구를 늘려, 3차산업은 물론, 1차산업까지 관광산업의 수혜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8일 광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2024년부터 시작하는 '강진반값관광'의 무궁무진한 개척 가능성에 대해 피력하며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강진반값여행은 숙박비나 교통비를 일부 지원하는 보완책이 아닌 관광객이 강진에서 소비한 돈의 절반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강진 내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수혜의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 군수는 반값 강진 관광의 수혜를 먼저 외지에서 주거하고 있는 군민들의 가족, 친척, 친지에 서부터 출발해, 전 국민으로 확대해간다는 전략

이다.

강진군은 축제를 기반으로 한 관광객 유입을 위해 지난해 열린 9개의 축제와 행사 이외에도 2024년에는 '군동 벚꽃 축제'를 예정하고 있으며, 격년제로 열리는 '마량 미향 잘전어축제' 도 올해 개최돼, 총 11개의 축제를 통한 관광객 500만 명 유치에 도전장을 내민다.

농림축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아낌 없는 투자도 계속된다. 1차산업에 전체 예산의 24.4%인 1132억 원이 투입되며, 쌀 시장 선점을 위한 '미호벼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벼보다 수익성이 월등한 논콩재배를 300ha까지 확대한다.

전국 최고의 육아수당 지원도 계속되고 여기에 산후조리비는 154만원까지 늘리며, 아동발달지원계획의 대상 범위를 확대 취약계층 아동의 사

회진출 초기 비용을 강화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책으로 이주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주택 신축이나 빈집 리모델링시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되며, 이를 푸소, 목은지, 스마트팜, 청자 등으로 연계 시 2000만원이 별도 지원된다. 귀농정착금까지 지원받을 경우, 지원액은 최고 7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은퇴자나 이주를 꿈꾸는 도시민을 위한 신규마을도 조성된다. 지난해 10월 강진을 임천리 일대 20만9447㎡에 150세대가 들어서는 임천지구의 조사업체유역이 착수됐고, 대구면 구수리에 16가구의 전원주택이 조성된다.

청자도시의 위상도 이어간다. 세계도자기엑스포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세계도자기엑스포는 강진군의 제안으로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이 함께 공동개최하는 국제적 이벤트로, 단계적 추진을 거쳐 강진의 도자 문화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큰 그림이다.

새해에는 지난해 체결한 백종원의 쉼터보코리아와 MOU를 구체화한다. 맛의 도시 강진을 살

려 지역 특화 음식을 차별화된 콘텐츠로 만들고, 다양한 판로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입에 밑거름을 지킨다.

지난해 확보한 전남형 균형발전 사업비 330억 원을 폐교된 성화대 리모델링에 본격 투입한다. 성화대는 4차산업혁명 핵심 거점 기지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및 실감 콘텐츠 기업과 연계해 청년창업 지원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강 군수는 축제 다각화-관광객 유입-인구 유입의 효과-지역 경제 활성화-지자체 성장의 지속적 선순환 구조를 통해 강진군의 발전을 도모해간다는 전략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인구가 곧 지방의 경쟁력인 시대, 인구 유입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올 한해 '반값강진여행'으로 강진 관광의 새 역사를 쓰겠다"며 "축제마케팅추진단,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 등 조직개편을 통해 관광객 500만명 달성에 균형 발전의 명운을 걸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군 관광·휴양 인프라 확충 생활인구 늘리기 총력전

출향인 고향 방문 지원·농촌 유학거주시설 조성 등 다양한 시책

화순군이 올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도 늘리기 위해 '출향인 고향 방문 지원'과 '농촌 유학 거주시설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기로 했다.

화순군은 올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향인 고향 방문 지원 ▲농촌 유학 거주시설 조성 ▲에코 힐링 휴양타운 조성 ▲트리빌리지(숲체류형 휴양시설) 조성 ▲화순 흥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 등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출향인 고향 방문 지원' 사업은 화순군에 살다 다른 지역으로 나간 출향인을 대상으로 화순방문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향인의 애환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추진한다.

'농촌 유학 거주시설 조성'을 통해서도 공공건물인 커뮤니티센터 2개소를 새로 단장해 가족 체

류형 거주시설로 사용한다.

에코 힐링 휴양타운과 트리빌리지는 숲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숙박과 체험,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화순 흥수조절지 인근 공간에는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주민과 관광객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또 농주면에 있는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지난해까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화순천 꽃강길 조성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화순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농촌관광 육성·활성화, 산촌생태마을 조성, 농촌 유학 지원사업,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등을 시행해 왔다.

화순군은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화순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인재 양성, 생활 인구 증대,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전략을 담은 '화순군 인구감소 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해마다 연간 시행 계획을 세워 화순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경제 공백과 지역 위축을 줄이고자 생활인구 확대 정책도 펼친다.

생활인구란 기존의 정주 인구에 더해 통근, 통학, 관광 등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인구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인구감소로 인해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인구개념을 반영한 생활인구는 지역 활성화를 돕는 중요한 핵심"이라며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기존의 정책들과 더불어 올해 새로운 시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화순경찰 어르신 보행 전동차에 스티커 부착

화순경찰이 지역 어르신들의 보행 보조용 전동차에 부착한 반사지가 효용을 얻고 있다.

화순경찰서 동북파출소는 최근 동북면과 백아면 일대 어르신이 소유한 보행 보조용 전동차 150여대를 대상으로 전동차 뒷면에 형광색 스티커를 부착했다.

반사지 부착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보행 보조용 전동차 운행이 늘어나면서 교

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성치안 차원에서 진행했다.

화순경찰서 동북파출소 조주복 경감은 "면민 인구의 50% 넘는 초고령화로 접어들어 '전동차 뒷면에 부착한 형광색 스티커가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나주시 치매관리울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곳 중 1위

등록 109%·서비스 이용률 99%

나주시가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곳 가운데 정부합동평가 치매관리울 1위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곳 중 치매관리울 실적 부문 전국 1위에 나주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울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일자라 건강·돌봄체계 강화의 하나로 치매영양을 대비 '치매환자 등록률'과 '치매환자 서비스 이용률', '보호자 서비스 이용률'을 산식에 따라 합산·평가한다.

나주시는 치매환자 등록률 109.9%, 치매환자 서비스 이용률 99.4%, 보호자 서비스 이용률 69.6%를 각각 달성하며 총점 95.5%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지난해 기준 나주시 등록치매환자 수는 3730명으로 전년도 추경 치매환자 수인 3395명과 비교해 109.9%(335명) 증가했다.

이 중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 환자 수는 3720명, 환자 사례관리·자원연계 건수는 3652건으로 집계됐다. 치매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률은 99.4%에 달했다.

나주시는 지난해부터 '나주형 3개년 치매전수조사' 정책을 펼쳐왔다.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60세 이상 주민의 치매



윤병태(가운데) 나주시장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2023년 행안부 주관 정부합동평가 치매관리울 전국 1위 달성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기 검진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예방·발굴하는 시책이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나주시는 조사 첫째 1만2322건의 조기 검진을 마무리하며 애초 목표치였던 1만2000건을 초과 달성했다.

검진 대상은 60세 이상 시민으로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진료소에 직접 방문하면 무료로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주민의 경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마을 경로당, 대상 가구로 직접 찾아가는 밀착 행으로 큰 효용을 얻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비·치료관리비·조호물품 지원, 인식표 발급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치매전수조사와 더불어 치매 통합돌봄을 위한 100세 안심경로당(180곳) 지정, 100세 돌봄 관리사의 인지도 증진 교육 등도 추진했다.

/나주=윤병태 기자 ybson@kwangju.co.kr

장성군농기센터 농촌진흥시범사업 29개 신청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달 말까지 농촌진흥시범사업 5개 분야 29개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은 농업인 육성, 귀농경영, 작물환경, 원예기술, 소득창출 등 총 5개 분야 29개 사업이 있다.

약 29억8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2040세대 청년 농업인 육성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농식품체험꾸러미 상품화 시범 ▲전남도 육성품종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밭작물 생산단지 조성 시범 ▲딸기육묘 개발 시범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 ▲황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 ▲활발자원 육성품종 증식보급 시범 등이 있다.

장성군에 사는 농업인이나 농업 관련 단체,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별 신청 요건을 갖춰 이달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농업기술센터 담당팀에 내면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 '2024년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시행지침·신청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현장 심사와 장성군 농업인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윤병태 나주시장, 오늘부터 주민과의 대화

24일까지 20개 읍·면 순회 방문

윤병태 나주시장이 '주민과 더 가까이, 행복한 나주시'를 주제로 새해 시장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시장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주민과의 대화' 일정을 마련했다.

윤 시장은 9일 봉황면·영산동을 시작으로 24일까지 20개 읍·면·동을 돌아볼 예정이다.

지난해 시민과 함께 이뤄낸 시장 핵심 성과와 2024년도 시장 비전과 정책, 주요 운영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주민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읍·면·동별 생활 불편 사항과 분야별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장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대화는 오전 10시~11시30분, 오후 2시~3시30분까지 1일 2회 진행한다.

올해는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매월 1회 '시민 직소 상담실'을 운영하고 불편 사항을 시장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바로 문자 서비스'(일사천리 민원시스템)를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주민과의 대화 일정 9일 ▲봉황면·영산동 ▲10일 동강면·이창동 ▲11일 산포면·금천면 ▲12일 남평읍·송월동 ▲16일 노안면·금남동 ▲17일 공산면·성북동 ▲18일 문평면·다시면 ▲19일 다도면·빛가람동 ▲23일 세지면·반남면 ▲24일 왕곡면·영강동 순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더 가까이서 시민의 입장을 꼼꼼히 살피고 눈을 맞추며 동행하는 공감 행정을 강화해 가겠다"며 "살기 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위한 각계 각종 시민의 소중한 의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어르신 방문 진료 '재택의료팀' 운영

복지부 시범사업 공모 선정

담양군은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담양군 보건소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재택의료팀' 한 조를 이뤄 방문 진료를 하고 지자체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의료진은 수급자의 건강 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진료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걸 방지하는 게 목표다.

재택의료팀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보건소 1팀과 보건지소 11팀을 운영한다. 의사는 월 1회 이상 진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간호,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 수요 발굴·연계 등을 제공한다.

이병호 담양군수는 "담양군에 실질적 가족 돌봄이 없는 어르신이 노인인구의 35%,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자가 2100여 명"이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과 더불어 찾아가는 주민건강 지킴이, 우리마을 주치의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고향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담양형 향촌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